

목포시청 하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4강 진출 기염

여자 일반부 사전경기... 8강전서 아산시청 완파, 동메달 확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메달... "내친김에 우승까지" 필승 각오

목포시청 하키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여자 일반부 사전경기에서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목포시청 하키팀(감독 배상호)은 지난 4일 충남 아산 학산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8강전에서 '강호' 아산시청을 2:1로 힘겹게 누르고 4강에 진출함과 동시에 동메달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난 2일 제주국제대와의 첫 경기에서 4: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던 목포시청은 아산 시청까지 물리침으로써 전남선수단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첫 메달을 선사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목포시청 하키팀의 예상 밖 선전에 힘입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난해 성적(종합10위)을 능가한 한자릿수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선수단에 희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선수단 사기 앙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다시말해 목포시청 하키팀의 승전보가 단순한 4강 진출, 동메달 획득이 아닌 전남선수단의 사기 충천의 시너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하기에 목포시청 하키팀에 있어 아직 동메달 이상의 색깔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목포시청은 오늘 8강전에서 '국가대표 군단' KT를 승부타 끝에 이기고 올라온 인천광역시체육회와 6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판 혈투를 남겨놓고 있다.

배상호 목포시청 하키팀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줘 계속 좋은 경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남은 경기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목포시청 하키팀은 지난 4일 충남 아산 학산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8강전에서 '강호' 아산시청을 2:1로 누르고 4강에 진출함과 동시에 동메달을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내친김에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획득 이후 3년간 노메달의 아쉬움을 이변 대회에서 보기

좋게 펼쳐내고 있는 목포시청 하키팀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선수단에 메달을 첫 금메달로 선사할 수 있을지 자못 기대되고 있다.

/오복 기자 boh@



피겨 여자 싱글 셋별 이해인(가운데)이 7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ISU 주니어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금메달 따고 온 피겨 이해인 "김연아 언니 영상보고 뛰어"

한국 선수로는 7년 만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이해인(14·한강중)은 처음 겪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차분한 성격을 선수로서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한 지현정 코치의 말처럼, 그는 떨지 않고 취재진에게 우승 소감을 툭툭박박 말했다.

이해인은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쇼트프로그램에선 작은 실수가 나와 아쉬웠는데, 프리스케이팅에서 부담 없이 뛰게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해인은 7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ISU 주니어그랑프리 3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0.70점, 총점 197.63점을 받아 김연아, 김해진 이후 한국 선수로는 세 번째로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다빈(고려대), 임은수(신현고), 김예림(수리고) 등 '포스트 김연아' 수식어를 달았던 수많은 선수가 이루지 못했던 대기록이다.

이제는 이 수식어를 이해인이 이어받는 분위기다. 이해인은 "사실 이번 대회 쇼트프로그램을 앞두고 (김)연아 언니의 경기 영상을 돌려봤다"며 "(김)연아 언니의 뒤를 잇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묻는 말에 "연기가 잘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성격인 것 같다"며 "(차기 출전 대회인)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인의 깜짝 성장으로 한국 여자 피겨 싱글은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연합뉴스



곽로영 등 '광양여고 3인방' U16 여자 국가대표팀 선발

곽로영·김가연·김민지 승선
15일부터 태국 AFC 참가

'여자 이강인'으로 불리는 곽로영(광양여고 1년)을 비롯한 광양여고 축구부 3명이 U16 여자 국가대표팀에 최종 선발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일 오후 15시부터 28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2019 AFC U16 여자 챔피언십에 참가할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했다. 이 중 현재 '전국 여자 고교축구 최강팀'인 광

양여고에서 3명을 배출해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대표팀에 승선한 광양여고 축구부 소속 3명은 공격수 곽로영, 김가연과 수비수 김민지(이상 1년)다.

특히 이번 U16 여자 챔피언십 대회는 결승에 오른 두 팀만이 내년 인도에서 열리는 2020 U17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한 승부가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뒀고, 여기에 광양여고 선수 3명이 태극마크를 다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 6월 FIFA U20 월드컵에서 '정정용호'의 코치로 활약하며 한국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쓴 데 공헌한 인창수 감독은 이날 엔트리를 발표하며 "곽로영은 이강인보다 여자대표팀 연령대에서는 2~3배 이상 잘하고, 영국 여자프리미어리그 첼시 레이디스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의 동 나이 때보다도 더 잘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곽로영은 중학교 3학년의 나이로 지난해 우루과이에서 2018 FIFA U17 월드컵에 참가해 유럽 선수들 앞에서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준 바 있다.

또한 곽로영과 함께 '광양여고의 에이스'로 불

리는 김가연, 김민지도 태극마크와 함께 챔피언십 대회 참가 직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U17 여자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FIFA 주관대회 첫 우승컵을 안겨줬던 '광양여고 선배' 백은미, 심단비(이상 25)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기 위해 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양여고 축구 에이스 3인방'이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에 2020 U17 여자 월드컵 출전권과 함께 전남에 전국체전 금메달을 선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복 기자 boh@

벤투호, 성공법으로 투르크메 뚫는다... 측면 돌파·빠른 역습

오늘 새벽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

"중앙에 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 측면으로 볼을 돌려서 수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좌우 풀백은 기회가 나오면 곧바로 크로스를 올려야 합니다."

지난 7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파티흐 테림 스타디움 훈련장에서는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의 지시를 선수들에게 설명하는 통역의 목소리가 쉴새 없이 이어졌다.

5일 조지아 평가전을 끝낸 벤투호는 6~7일에 걸쳐 투르크메니스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에서 가동할 전술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의 코페르다그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2위인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뗀다.

훈련을 지도한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코치는 선수들에게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앙을 공략하려면

선수들이 밀집돼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볼을 측면으로 돌려서 수비를 분산시킨 뒤 다시 중앙을 공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좌우 풀백들을 향해 "크로스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페널티지역으로 볼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측면 공략뿐만 아니라 역습도 강조했다.

한편, 터키 이스탄불에서 지난 2일부터 이스탄불에서 훈련을 치러온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9일 오전 '결전지'인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7일 오후(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 파티흐 테림 연습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